

제15회 목포문학상

당선자 수상소감

제15회 목포문학상

박화성소설상 수상소감

김 혜 빈



소설을 쓰는 내내 너무 엄숙해지지 말자고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소설이 아주 만만해지기를, 그래서 누군가가 끝까지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가능과 불가능만이 가능한 오늘날 가능을 가능한다는 것은 가불가를 따지는 일보다도 어렵겠으나, 저는 **그 일**이 가능하길 바란 것입니다.

그 일 = 엄숙하지 않고 만만한 소설 쓰기. 누군가가 이 소설을 들춰보았다가 기이한 아름다움을 감지하기. 끝내 완독하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주 가까운 이에게만 그 사실을 전하거나 입을 꼭 다물어버렸는데(순전히 부끄러웠거나 성난 시선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때부터 제겐 일종의 괴벽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별거 아니라며 성취한 것들을 깎아내리거나, 잘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들이 겸 놀러 온 친구들이 제 사치품을 보며 감탄하더니, 돌연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째서인지 조금 우울해져, 분명 잘 알고 있는 물건인데도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며 거짓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약간의 안도 섞인 미소) 어떻게 네 물건인데 모를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한 저는 결국 부엌으로 달아났습니다. 겸손을 무지로 대치하는 이 병증이 언젠가 나아진다면, 오늘을 편히 회상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지나친 겸허 뒤엔 분명한 기쁨 역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심사위원 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나의 R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냅니다. 손수 서류 봉투에 주소를 써주고 우체국에 데려다주어 고맙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우리 둘의 강아지 B가 죽으면(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절대 복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죠. 저는 그날 일을 자주 떠올립니다. 저는 어쩌면 B를 복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죽으면 당신도 복제하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 당신만은 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와 결혼해주어 감사합니다.

2023년 여름, 잠든 R과 B의 곁에서

제15회 목포문학상

목포작가상 본상 수상소감

김 미 승



지루한 장마가 끝날 무렵 햇살처럼, 반가운 수상 소식을 받았다. 무척 기뻐다. 날씨 탓도 있겠지만 요즘 웬지 기운이 빠지던 참에 보약 같은 낭보였다.

목포는 내 인생에 참 의미가 깊다. 모든 감수성이 치솟던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기 때문이다. 태어나 처음으로 배를 타고(용당에서 철선을 타고) 목포에 갔던 때가 떠오른다.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가족 모두가 목포로 이사를 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목포에서 다녔다. 감수성이 가장 치솟던 청소년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밑바탕은 어쩌면 그때 목포에서 다져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내 작품의 곳곳에 목포에서의 추억들이 스며들곤 한다. 때로는 작품의 배경으로, 때로는 그 시절의 친구들이, 때로는 그때의 못다 한 꿈들이 내 작품 안에서 피어나곤 한다. 이번에 영예를 안은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도 목포가 배경이다. 딱히 작정한 건 아니었는데 작품구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목포에는 내로라하는 문학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김우진, 차범석, 박화성, 김현 선생님 등, 어느 지역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자랑스러운 분들이다. 감히 다가설 수 없는 분들이지만, 작가로서 그분들처럼 좋은 작품을 남기고 싶은 게 나의 꿈이다. 이번 수상이 내 꿈에 박차를 가해지기를 바라며, 수상의 영예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목포시에 깊이 감사드린다.

강 성 희



수마가 활쫓고 간 올 여름은 너·나 할 것 없이 불행의 연속이었다. 온 세상을 헝클어버린 긴 장맛비 탓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작금의 현실 앞에 내가 이런 상을 받게 되었다고 마냥 기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일을 하던 상을 받는다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목포문학상 본상이 나에게 그런 행운을 안겨준 것이다. 사실 詩集을 보내면서도 과연 남이 상을 타는데 나는 또 박수만 쳐야하고 들러리만 서야 하는지 고민도 되었다. 어쩌면 뜬구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뜬 구름을 내 가슴으로 안아 포만감을 일으켜 준다면 그런 뜬구름은 꼭 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본다.

어차피 인생은 도전이다. 맞을 때 맞더라도 빈주먹이라도 한번 날려보고 맞자는 심정으로 응모에 참여하였는데 우연찮게 나의 그 졸작이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그냥 행운을 준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나에게 더욱 정진하여 더 좋은 글을 써보라는 뜻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 그리고 목포문학상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한 줄 한 줄의 글을 써서 독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길



‘목포’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른 것은 목포항, 목포역, 삼학도, 유달산 그리고 그 위에 정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고등학생시절 국어 선생님입니다. 어느 수업 시간 박목월님의 ‘나그네’를 낭송하시는 모습이 ‘너희는 이처럼 시인이 되어라’ 하시는 암묵적인 가르침 같았습니다.

둘째는 그로부터 얼마 후 교지 편집실, 교지 만드는 일을 돕고 있을 때 저희에게 어느 선생님이 오시더니 ‘문학을 하면 배가 고프지’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후 저는 글 쓰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웬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러나 국어 선생님의 시 낭송하시는 모습이 저의 머리를 오가며 ‘시를 쓰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렇게 직장생활 40년을 보냈습니다.

은퇴하고 보니 마음 한 구석에 ‘시를 써야 겠다’는 마음이 내 발걸음을 목포문학관으로 돌려 왔습니다.

넷째는 목포문학관을 오가며 많은 문우를 만났고 김선태 교수님 수업을 들었으며 목포 사람으로 목포항, 목포역, 삼학도, 유달산 어느 곳이든지 시가 철철 넘치는 곳이니 이곳에 얹힌 자기 이야기를 써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쉽게 술술 시가 시답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연고로 어릴 적부터 무언가 쓰고자 하는 시를 배우게 되었고 이 길을 알려주신 김선태 교수님, 목포대 평생교육원 박성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부터 ‘목포작가상’을 본상과 작품상으로 구분, 신설하여 주신 박홍률 목포시장님,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작품을 밀어주신 심사위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15회 목포문학상

목포작가상 작품상 수상소감

이 순 희



칠월 끝자락, 깨꽃이 하얗게 종을 매달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을 받았다.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시를 쓴다고 하면서
풀잎 이슬을 깨우는 공의 길 따라 잔디밭으로
땀으로 얼룩진 얼굴 숨 가쁜 산으로
셀루리안 블루에 아득히 닿고 싶었던 여정들
기웃거리며 나를 찾아다녔던 길

수천수만 리 여흔(餘痕)
결국
내가 보고 느끼고 만났던 모든 것이 시였다.

책임이 무겁다
남은 시간 부끄럽지 않도록
이 계기로 더 좋은 시를 쓰고 싶다.

“깨꽃 종소리 야무지게 쳐라.”
여릴 때마다, 어머니 발걸음 소리 쿵쿵 들려온다.

부족한 시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 올립니다.

장 계 연



‘나는 날마다 클래식을 들으며 커피를 마신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클래식을 듣는다.’
나는 내 안에서 작용하는 이런 유의 미세한 장력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클래식은 무엇에서부터였지, 커피는 또 언제부터였지?’라고 물음을 바꿔봤습니다.
금세 작은 풀꽃 같은 이야기가 살아납니다.

나는 요즘 클래식을 듣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옆에서 그런 나를 보는 아내는 내 몸이 온통 클래식으로 싸여 있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하면서까지. 어느 날 나는 내 클래식의 시작은 어디였지, 또 언제였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이 「울몰, 내 마음의 노래」입니다.

새내기 교사로 섬 학교를 찾은 내게 울몰은 생소했습니다. 그 울몰은 내게 큰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추억도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내 젊은 날의 혼란스러웠던 때에 소중한 벗이 되었습니다. 민화의 죽음은 큰 아픔을 주었고, 혼자서 이겨내기에는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섬 학교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소프라노 선생의 만남은 내 아픔을 쉽게 아물게 했습니다. 소프라노 선생은 민화가 내게 보내준 선물이 분명합니다. 내 클래식의 연원을 찾아가면 그 끝에 소프라노 선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내게 아름다웠고 소중했습니다.

나는 지금 지난 시간 속에서 흠어져 쓸모없을 것 같은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갑니다. 그런 조각들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풀꽃처럼 살아나리라 확신합니다.

글쓰기는 혼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한, 어느 작가의 말처럼, 저의 글쓰기에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저에게 당선의 기쁨을 안겨주신 분들의 응원은 앞으로 써가는 제 글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